**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일의 안식이신 그리스도**

**6/3 월**

**창 1:26** 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.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, 하늘의 새와, 가축과, 온 땅과,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.”

**창 2:2** 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완성하시고,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.

**창 1:27-28**  
**27** 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.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,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.  
**28** 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. “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,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.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, 하늘의 새와, 땅 위에서 움직이는 살아 있는 온갖 것을 통치하여라.”

**창 2:3** 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.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.

**히 2:6-8**  
**6** 어떤 사람이 성경 어딘가에서 엄숙하게 증언하였습니다. “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여 주시며,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?  
**7** 주님은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며,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,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,  
**8** 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.”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

**출 20:8** 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라.

**6/4 화**

**신 12:9** 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유업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.

**히 4:8-9**  
**8** 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,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.  
**9** 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.

**계 20:1-4, 6**  
**1** 또 내가 보니,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,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.  
**2** 그 천사는 그 용,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을 잡아 결박하여서, 천 년 동안  
**3** 무저갱에 던져 넣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, 천 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.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.  
**4** 또 내가 보니,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,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. 또 내가 보니,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,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.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.  
**6** 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.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.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,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.

**6/5 수**

**마 11:28-30**  
**28** 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,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.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.  
**29** 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,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.  
**30** 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.”

**요 4:34** 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.

**요 5:30** 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.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.

**요 6:38** 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,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.

**마 26:39, 42**  
**39** 조금 더 나아가시어,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하셨다. “나의 아버지,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,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.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.”  
**42** 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. “나의 아버지,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,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.”

**엡 4:20-21**  
**20** 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.  
**21** 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,

**6/6 목**

**출 31:17** 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표시이다. 이는 여호와가 육 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,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이다.’ ”

**고전 15:10** 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,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.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,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.

**출 31:12-16, 18**  
**12** 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 
**13** “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. ‘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.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,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시이기 때문이다.  
**14** 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. 이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. 누구든지 이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. 누구든지 이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.  
**15** 육 일 동안은 일을 해야 한다. 그러나 일곱째 날은 완전히 안식하는 안식일이며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니,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.  
**16** 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,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.  
**18** 여호와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그에게 증거판 두 개를 주셨는데,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들이었다.

**행 2:13-14**  
**13** 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였다. “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군.”  
**14** 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. “유대인 여러분, 그리고 온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,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으니,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.

**6/7 금**

1. **히 4:12** 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,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,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2. **딤후 4:22** 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.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
3. **고전 10:6, 11**  
   **6** 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은 그들이 악한 것들을 열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  
   **11** 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.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.
4. **롬 8:3-4, 10, 16**  
   **3** 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.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,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 
   **4** 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.  
   **10** 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,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,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.  
   **16** 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.
5. **엡 2:22** 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.
6. **갈 6:18** 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, 형제님들. 아멘.
7. **6/8 토**
8. **히 4:16, 2**  
   **16** 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,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.  
   **2** 우리도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들이 들은 말씀은 말씀을 들은 그들의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.
9. **엡 6:17** 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.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.
10. **창 28:12-19**  
    **12** 야곱은 꿈을 꾸었다.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,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,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.  
    **13** 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시어 말씀하셨다. “나는 여호와,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. 나는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.  
    **14** 너의 씨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,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.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.  
    **15** 보아라,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고,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.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.”  
    **16** 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다. “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몰랐구나.”  
    **17** 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. “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!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.”  
    **18** 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, 머리에 벴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.  
    **19** 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벧엘이라고 하였다.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.
11. **요 1:51**  
    **51** 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. “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.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.”
12. **6/9 주일**
13. **히 3:7-19**  
    **7** 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. “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,  
    **8** 그분을 노여우시게 하던 것처럼,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하던 날처럼,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.  
    **9** 거기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여 떠보았고, 사십 년 동안이나 나의 일을 지켜보았다.  
    **10** 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 대하여 언짢아하며 말하였다. ‘그들은 항상 마음이 빗나가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.’  
    **11** 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,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.”  
    **12** 형제 여러분, 여러분 중에 아무도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.  
    **13** ‘오늘’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안에, 여러분은 매일 서로 권유하여,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.  
    **14** 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,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될 것입니다.  
    **15** 성경에 “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, 그분을 노여우시게 하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.”라는 말씀이 있는데,  
    **16** 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분을 격노하게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?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?  
    **17** 또 하나님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를 언짢아하셨습니까? 죄를 지어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뒹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?  
    **18** 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셨습니까?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?  
    **19** 우리는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.
14. **찬송: 746 (英)**